

겸손을 사모합시다

벧전 5:5-6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 6:17 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 가지가 열거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든 싫어하시는 목록의 첫 번째가 교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미가 6:7-8 에서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 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1.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인데 그들의 죄가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범죄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통제가 안 된다면 혹시 교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분은 별로 안 보이지만, 진정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겸손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2. 교만하면 버림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잠 16:18 에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이고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고, 잠 18:12 에는 “교만은 파멸로 이르고 겸손은 존경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사람 앞에는 교만해도 하나님께만 겸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5 절에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겸손을 말씀하면서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교만한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부가 그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부처를 보고 손을 모으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자기를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마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를 앓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는 채찍으로 이 당나귀를 내려쳤습니다. 갑자기 내려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당나귀의 등에 있던 돌부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당나귀 다리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만 쓸모없는 나귀가 되어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부모자식도, 물과 땅과 공기와 햇빛도 내가 만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도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시간도, 삶의 기간도,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시한부 인생으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은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은 실로 큰 죄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은혜 없이 불가능한데 겸손한 자가 되어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 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교회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잠 22:4 에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 겸손히 그분을 모시고 살면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얻는다.” 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일입니다. 길을 지나는데 앞쪽에서 한센씨병(나병/문둥병) 환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복음도 전하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웬지 더러운 생각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왜 그냥 지나쳤는데?”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그 병자보다 깨끗하냐? 나은 게 있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 병자에게 뛰어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병자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었기에 그는 은혜가 넘치는 영성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빌 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4년간의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난 후, 링컨 대통령과 스토 부인(Mrs. Stowe)이 만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지도자로서 노예해방을 위해 싸웠고, 스토 부인은 ‘톰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평등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스토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스토 부인입니까?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는 아주 강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토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소설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이지요.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르군요. 의외로 인자한 표정이시네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지도자가 역사를 창조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여 사용하실 때에도 결코 교만한 자는 선택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모든 계획과 방법과 과정을 주님께 무릎 꿇어 구하였던 겸손한 신앙인들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자신의 지혜를 믿기에 결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겸손을 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